

‘눈에는 눈 이에는 이’...미·중 무역전쟁 점입가경

**미국, 1300개 품목 25% 관세
중국, 발표 1시간만에 응전 다짐
양국 치명타만 골라 보복전
갈등 속 ‘밀당’ 협상은 진행형**

미중 양국이 서로 치명타가 될 고율 관세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무역분쟁이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중국 무역 적자의 원인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돌리며 강력한 관세 폭탄으로 중국을 압박한 데 대해 중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물러서지 않고 곧바로 맞불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여 품목을 겨냥한 고율 관세 조치에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항공기에 관세 폭탄을 쏟아부을 기세다. 4일 미무역대표부(USTR)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응전을 다짐하고 나섰다. 중국은 외교부와 주미 중국대사관 등 유관 부처 등도 총동원해 미국에 보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서로 치명타를 날리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경제 개혁을 위한 청사진으로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국 제조 2025’ 품목을 정조준했다. 이는 중국의 미래먹거리로서, 중국이 미국을 포함해 서방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목적으로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 품목들이다. 중국 지도

부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을 막으면서도 개발마저도 중단시키려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G2로 성장한 중국의 발전 동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으며, 중국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비쳐왔다. 이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보복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우선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은 지난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양국이 겨냥하는 방향은 결국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시

주석의 집권 토대인 중국의 강력한 제조업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발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보복조치를 예고한 중국은 향후 관세 부과 품목에 미국산 대두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재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여객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여객기의 최대 시장이고 자동차는 두 번째로 큰 판매처다. 이처럼 고조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협상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거센 공세에 동등한 보복을 하겠다고 ‘보복의 채찍’을 보여주면서도 미국에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성의 표시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연합뉴스



미국	중국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25%	미국 수입품에 25%, 15% 보복 관세 동시 부과
중국 제조 2025 10대 핵심업종 1,300개 품목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	25%의 관세 부과 8개 품목: 돈육, 돈육제품, 재할용 알루미늄 등 2017년 수입액 19억9천200만 달러 106개 품목 추가(4일): 대두, 자동차, 화공품, 항공기 등 14개 분야 15%의 관세 부과 120개 품목: 신선과일, 건조과일, 견과류, 와인, 미국산 인삼, 강판(철강 파이프) 등 2017년 수입액 9억7천700만 달러
500억 달러(약 54조원)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입 물량 5천억 달러, 약 540조원의 약 10% 상용)	관세 부과 규모 30억달러(약 3조1천900억원)

트럼프, 멕시코 국경에 군 배치...위법·국제 갈등 논란

멕시코, 이민자 행렬 해산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멕시코 국경장벽이 건설될 때까지 군대를 보내 국경 경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트 3국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멕시코 국경) 장벽을 쌓고 적절한 경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군대로 국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국경 경비는 군대가 아닌 국경순찰대가 맡고 있다.

그의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나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조지프 터퍼드 합참의장, 존 켈리 비서실장 등과 따로 회의를 하고 국경 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회의 직후 성명을 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대책에는 ‘주 방위군 배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군 배치 규모나 역할 등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의회에서 멕시코 장벽 예산이 삭감된 이후로 이민 문제 재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폐기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군 부



소녀의 보금자리는 언제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멕시코 국경장벽이 건설될 때까지 군대를 보내 국경 경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멕시코 오악사카주 마티아스 로메로에서 ‘캐라밴’ 행진에 참가 중인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스포츠 센터 잔디밭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의 국경 경비 임무는 위법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의회 승인 없이는 미국 영토 내에서 민간 법 집행 임무에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 법률(The Posse Comitatus Act)과 상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따라 주 방위군을 포함한 미군 병력은 국경에서 민간인을 체포하는 등

의 국내 법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아울러 멕시코 정부가 이런 계획에 반발하고 있어 국제 갈등으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 /연합뉴스

굶지 않도록...日 ‘어린이식당’ 2200곳 넘어

일본에서 빈곤가정이나 혼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지역 어린이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식당’이 2200개를 넘어섰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자와 지역 어린이식당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식당 안심·안전향상위원회’는 일본 내 어린이식당 수가 2286개소로 집계됐다고 전날 밝혔다. 어린이식당은 법률상 별도로 정의된 곳은 아니다. 2012년 도쿄도 오타구에서 처음 시작되면서 확산했으며

비영리단체(NPO)나 사회복지법인, 기업 등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식당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2016년 5월 자체 조사한 결과 어린이식당이 319개소였으며 단순 비교해도 2년여간 7배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식당은 빈곤가정이나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위원회는 연간 합산 이용자 수를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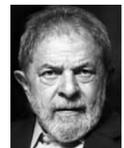
브라질 100개 도시서 플라 체포 촉구 시위

브라질 좌파 노동자당(PT)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불구속 재판 심리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3일(현지 시간) 부패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룰라 전 대통령 체포·수감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룰라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불구속 재판 요청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으며, 정치권과 사법부는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시위는 전국 27개 주(브라질리



아 연방 특구 포함) 가운데 24개 주 100여 개 도시에서 진행됐다.

시위대는 1시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룰라 전 대통령을 체포·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 노동자당(PT) 당원과 지지자들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룰라 체포·수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당은 연방대법원 심리가 열리는 4일 전국 규모의 집회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나주, 2층주택,사정상"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1000만원~~
급매 - 6200만원
(2018년 4월 10일까지 완불조건)
- 문의. 010-3605-5000